

교회 목표

신앙관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통일과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4: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골로새서 3:1-2)

발행인:이규호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영환 편집국장:이영수

주의만찬(1)

충현교회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3월 29일을 **성(聖) 금요일**로 정하고, 이 시간에 **'나팔'**이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성찬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실시했던 '정지하련'의 주제였던 '성찬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참된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자 한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금요일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만찬'에 관한 교훈을 새롭게 배우고, 진정으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전 11:23a)

복음사 기자들의 동일한 증언

예수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성만찬에 대한 교훈이 예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사 기자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예수께서... 때에 제자들을 주시니...', '저희에게 주시니'(마 26:26~27), '예수께서...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니...', '저희에게 주시니'(막 14:22~23), '때에 저희에게 주시니...', '찬도 이와 같이 하여'(눅 22:19~20), '한 초소를 찍으사 자기... 주시니'(요 13:26).

유산으로서의 성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유산으로서의 성찬은 매우 단순히 직접적인 것이었다. 즉, 성찬은 호렐을 거나 목장이나 일만 단순한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직접 나누어 주신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유산으로 남기셨는데,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화해와 성찬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그리고 유산으로 남겨진 성찬은 유산으로 남겨진 것인데, 그 목적은 '최후의 잔치'를 나누는 데에 있다. 즉, 출 24:11에서는 사사시대에서 모세가 제사장, 장로와 함께 연막의 식탁에 참여했던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야 25:6~8, 사도 12, 스가라 14:16에는 연막의 잔치로 사 마지마의 마티아스를 잔치로 초대되어 있다. 이러한 최후의 잔치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셨다. 마티아스를 81회는 동생들부터 11명들이 들어오는 잔치에 대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29와 마가복음 14:25에는 다름한 면에서 동일한 연막을 말씀하셨다. 유산으로서의 성찬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예수께서는 유산들을 이용하여 만민을 소개하시오라는 말씀을 통한 '영양적 유산'을 남기셨고,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나누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행위적 유산'을 남기셨다. 유산으로 사도 바울의 개종 전에 이미 초대교회에 자리잡은 예수로서 사랑의 행위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남기신 이 유산은 잊지 말고 전해야 하는 '시로 나누는 유산'이기도 했다. 즉, 제자들에게나 사도 바울에게서 흡수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달되어 왔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성찬은 '영원'(신적인 질서)을 가전하는 것이다.

예수이 성만찬을 성만찬이나 천국입문사 시행하지 말라 할 이유가 그것이다. '고린도교회'는 주의 만찬을 천국입문사 행했던 이교도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고 10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성찬의 신비한 영적인 의미와 기쁨을 거듭해서 강조하며 고린도교회에 전한 11장. 12장에 성찬에 대한 교훈. '고린도교회'의 문제점은 아니었다. 이러한 신화와 같은 세상의 교훈들은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성찬에 대한 소

중한 의미와 가치를 향하여 고려하게 도전했다(대만인 13~4).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성찬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자나 파괴하려는 자들의 고백한 일로였다. 어디 그 뿐이랴 거짓의 이별은 어느 날에도 이 땅의 땅을 계속할 수으로 침입하였고, 여전히 고린도교의 성찬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어, 성경한 주의 성찬을 더럽혀려고 음부하려고 있다. 혹시 우리도 주의 성찬을 왜곡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개

'정한 것' - 성찬을 베푸는 자(주여)가 있음을 뜻한다.

예수께서 성만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즉 성찬을 베푸는 자가 예수이므로 그가 성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것? 사도 바울은 성찬이 자기 자신이 나 어떤 사람에 의해 세심자라는 신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성찬은 세상이나 우리가 행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직접 재창찬한 것으로였다. 그렇다. 성찬은 세상과 그 어떤 예식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예식이다. 그리스도도 자신이 관련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찬은 하나님(신) 그리스도도의 '신적인 고'를 내보내고, 그리스도께서 창자 '성만'의 자가 되실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마말로 '하늘'의 은음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 이심을 나타낸다. 또한 성찬은 자기들 회상하는 '유월절'이란 뜻의 성물을 가장 철저하게 반영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는 영원한 재림의 약속을 통하여 그 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자신이 죄의원을 깨닫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다. 그 자신의 주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되삼을 깨닫게 된다.

'받은 것' - 성찬을 받는 자(우여)가 있음을 뜻한다.

성찬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며 성찬을.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 자신이 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즉, 그가 죽은지 3년 후의 나의 죄가 있는 것이며, 그가 죽은지 3년 후의 나의 때를 믿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찬은 성찬을 '하늘'을 위하여 받는 것으로였다. 분명히 성찬은 재림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대한 의로움과 경건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까이 분사시킨다. 또한 성찬은 하나님과 인간 또는 주님과 죄인이라는 '너와 나'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늘의 은음으로 거 가득한 하나님의 성찬이 되게 한다. 그리고 동시에 성찬은 성령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처럼 '신적 공동'에 동참하는 삶의 길을 요청하고 있다.

성찬은 인간에 대한 소망이 담긴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사적인 것이 아니라 때이다. 또한 우리는 잊지 않고 그리스도 구분만을 이 성찬에서 소망하기를 한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성령하에 대해서는 다른 예식과 형사상 행위는 없다. 온전히 기쁨을 기쁨이라 그나 정적 세상에 가장 귀한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리하게 행하는 것은 없는데 때로는 주를 기억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을 높이려는 그릇됨에 빠져있는데 없는데 속히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고 그분의 식탁에 선 것으로 참여할 때가(대만인 11).

위임목사 동정

위임목사는 세마니 참석 간사로 두 주간 출타 중에 있다.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충현의 성도들은 세마니의 모든 일과를 견고하여 위해서 지니실것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종려주일 · 고난주일 · 부활주일

1. 종려주일(3/24)

종려주일인 24일에 대한 **전 고난 연합예배**를 드린다. 주일 3부 예배는 혼잡하오니 주일 2·5 부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란다.

2. 고난주일(3/25~30)

고난주일은 월요일(3/25)부터 금요일(3/29)까지 **특별새벽기도회**를 모인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인인 금요일**하고, 저녁 금요일회에는 정로들이 **'나팔'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한다.

3. 부활주일(3/31)

부활주일 저녁 찬양예배는 아멘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부활축하 찬양예배**를 드린다. 또한 주일 4부 예배 후에는 직전사 선물을 위해 **공동의회**를 모인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권고

각 부서의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오니 양지하시고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와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어 무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은 교회 내의 급근부서와 교역자들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컴퓨터나 노트북에 모뎀을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인터넷을 하러한 것은 문 서적으로 유용한 모든 수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인터넷과 컴퓨터와 상관없는 검색을 창시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업무와 상관없는 인터넷 검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서는 타인의 불명한 사이트들에 접속한다. 이는 하나님 앞에 죄악한 일임으로 엄격하게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Mail 주소로 무차별하게 들어오는 스팸 메일을 통지하지 말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무차별한 스팸 메일을 개봉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에 서버를 설치하고 외부 통신은 사용자 통화를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정에서 우리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도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바, 충현에 속한 모든 민 음의 이용에 대한 통행과 규제를 통해서, 교회뿐 아니라 가정으로 퍼지고는 영적인 도전에도 각별히 유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형제들이 무엇보다도 참모대 무엇보다도 경관하여 무엇보다도 옳은 무엇보다도 정결하여 무엇보다도 사할 할 안하여 무엇보다도 정한 할 안하여 무엇보다도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

산양인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2002년 새해에도 우리는 주님에게 하락하신 교회의 모든 목회인(신한관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 계교회, 이웃사랑을 위해 우리들의 모든 힘을 바쳐 열심있게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대 목회자를 맞이 오셨는데 이 또한 이번은 행사와 교회 회정의 발판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목회인 근근이는 복음의 기반 위에서 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꽃피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일입니다.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가장 애매하고 실패한 것이 감사드립니다. 불행히도 만만치 않은 좋은 것도 아니라 자라나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정성과 헌신과 믿음으로 모든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믿고 매우 중언합니다. 올해 들어 고치는 남방교회(신)소사교회(신)를 지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모하고자 작정하고 1000여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와 후원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재교육과 개종, 주교 간사실 및 복지 학장, 목장간사 등 많은 건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을 실행하고 천국입문 양성을 위해 사용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다들아 헌금생활이 바로가 지켜지기를 믿고, 많은 성도님들은 하고 계시지만 집에서 깨끗한 돈으로 잘 준비 하였습니다가 주일 헌금시에 구별하여 정성껏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 금 정리를 하되만 참으로 민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사랑과 정성이 담긴 헌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근면하는 감화는 선을 살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천 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계 회를 믿고 알았음에 이르고 진정으로 성도를 구하기 보아야 하는 감화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 년의 70% 이상이 실업한 천국에 생명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감히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국입문으로 선물이 생겼을 때는 학생과 학부님들은 성도들이 첫 한걸음 장학금으로 받은 감사의 묘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별자도 그 다음 생도들에게 하신다 하려면 할만큼 헌금의 양을 장학금으로 받고 그 감사 자는 것은 생도의 도리가 아니라 생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매로 드릴 수 있으면 남는 것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의 생애도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하나님께 감사, 의뢰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의 의지 결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남는 감사할 수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첫 메시지가 되고 기뻐하고 존중하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상처와 고통과 지식을 내려놓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은 자기 수인의 기쁨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천국으로 새겨올 우리 삶의 모든 영적생활, 특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감사에 있어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 광 남 (장로, 재정위원장)

다음주 필자는 천도위원장 이상영 장로입니다.

Ascending to Jerusalem

(Luke 19:28~44)

*Blessed be the King that cometh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After Jesus saved the chief tax collector named Zacheus, He went on to preach a parable concerning faithfulness (see Lk. 19:1-27). This was the story about a nobleman who went to a distant country to receive a kingdom for himself, and then return. He gave ten of his slaves ten minas each. This was for business purposes. After he left, the citizens decided they didn't want him to reign over them anymore. When he returned, he ordered the slaves to account for his money. The slaves who increased his money were rewarded, and the one slave who hid the money was punished by having all his minas taken away from him and given to the one who increased his money the most. The minas represented the equal opportunity of life itself. The enemies who didn't want him to reign over them were slayed in his presence. This was their punishment for his victory. After Jesus told this story, "He was going on ahead, going up to Jerusalem" (v. 28). He knew the trials and betrayals that were coming. He knew the cross and resurrection which lay ahead.

Jesus' ascension to Jerusalem was right on time. His route was perfect. Each step he took was flawless. Jesus always moves in perfect time and to the exact place. Look at John 2:4. At the wedding in Cana, when Jesus' mother told him that they had run out of wine. He said, "Woman,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us? My hour has not yet come." Jesus always does His Father's will exactly on time. His ascension to Jerusalem was a most important time because He chose to do God's will. He desired to save sinners.

The Bible clearly illustrates God's purposeful and perfect timing. Daniel prophesied about the Messiah's coming (see Dan. 9:24-26). His numbers regarding the 70, 62 and 7 weeks correspond exactly to Jesus' time (around 4 BC). In Daniel's prophecy you find when the Messiah is going to come. This prophecy really happened. You can see Jesus going to Jerusalem in today's Bible passage. So, Jesus' timing was right on target. Another proof of Jesus' perfect timing can be found in Luke 19:30-34. Here, Jesus asked two of his disciples to go and fetch a specific donkey colt for him in a particular place. If anyone asked why they were untying it, they were to respond that the Lord had need of it. The disciples had no clue ahead of time what to expect, but they found and experienced exactly what Jesus had prophesied. God's wonderful plan is always right on time and in the perfect place. Actually, the affair of Calvary is not God's thought afterward but His forethought.

Why was Jesus ascending to Jerusalem? He wanted to fulfill the Scriptures. As He was going, the crowd shouted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v. 38). This quotation from Psalm 118:26 was fulfilled in their presence! Also, the animal he was riding on while the people sung, the donkey, was prophesied in Zechariah 9:9.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in triumph,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He is just and endowed with salvation.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Even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Isn't that wonderful? It exactly happened as foretold.

Micah 5:2 tells us, "But as for you, Bethlehem Ephrathah,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One will go

forth for Me to be ruler in Israel. His goings forth are from long ago, from the days of eternity." Jesus was born in Bethlehem. He was born from a virgin.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 (Isa. 7:14). If that isn't enough, read Isaiah 53:3, "He was despised and forsaken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 He was despised, and we did not esteem Him." Wasn't Jesus despised? Didn't people hate Him and want to kill Him? Didn't the crowd plead for Him to be crucified? Even so, He continued to ascend to Jerusalem for sinners,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ing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Isa. 53:5-6). Paul emphasizes,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 15:3&4). My dear friends, that's the heart of the Gospel! That's why Jesus went to Jerusalem! He wanted to fulfill the Scriptures. He wanted to die for sinners.

Jesus died for sinners. "When He approached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over it" (v. 41). Everybody was joyful and praising, but Jesus cried. It was an entirely different situation than what the crowd perceived. Jesus cried. He was going to die for these people. These people didn't even know what was going on. They had the Messiah in their presence, right on time, but they didn't accept Him. Just five days later, these same people who were praising Him cried out for Him to be crucified. Jesus knew—that's why He cried. He wanted to die for Jerusalem. He came to this earth out of perfect love, and because of His love He came to Jerusalem. His enemies were motivated and ready to kill Him. He awaited the cross. He didn't miss the time. He grabbed this time because of His desire to save all sinners. Jerusalem lost a wonderful opportunity.

Today is Palm Sunday. It is the time our church celebrates Jesus' coming to Jerusalem, on a donkey, as the anointed One. He is the Messiah. You have before you the most wonderful opportunity, the greatest opportunity, to be saved from eternal punishment. Do you want to sing praises to the Lord and then crucify Him later? Or do you want to take this perfect time to accept Jesus as your Savior? He loves you. He loved Jerusalem. Please my friend, don't miss this great time. You cannot find in this world any truth but Jesus. He's here for you now. All the poor men, women, and children of Jerusalem went out to praise Him, but they couldn't hold on. They betrayed Him. His kingship went out, but His victory requires punishment. I don't want you to experience His punishment. I want you to hold Him as your Savior until you meet Him.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Next week is Easter Sunday, Jesus' resurrection time. We have a wonderful Savior. We have a marvelous and merciful Savior. Please hold on tight. 

예루살렘을 향하여 (눅 19:28~44)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김성관 목사

열 므나의 비유

예수께서 삭개오라고 불리우는 세리장을 구원하신 후, 믿음에 관한 비유를 말씀 하셨습니다(눅 19:1~27 참조). 이 비유는 왕위를 받아 오려고 먼 나라에 갔다 온 한 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 명의 종들에게 각각 열 므나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종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의 종들은 그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돌아온 그는 종들을 불러서 그 동안 장사한 것에 대한 결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남긴 종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숨겨둔 종은 받았던 돈을 모두 빼앗겼고, 오히려 가장 많이 돈을 남긴 사람에게 모두 주어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 므나에 대한 비유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것을 표현합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은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승리를 위한 그들에게 내리진 형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신 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28절).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배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의 죽음과 부활이 앞에 놓여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되는 정당한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전진시킨 것은 완전하였습니다. 모든 발걸음마다 그분은 조금의 실패도 없이 걸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완전한 때, 그리고 정당한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4을 보십시오.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다고 말했다를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예루살렘 입성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정확한 시기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과 완전한 시기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단 9:24~26). 그가 언급하고 있는 ‘70 이레’, 7 이레(B.C.445~396), 그리고 ‘62 이레’(B.C.396~A.D.32)라는 숫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오실 때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본문을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의 시기는 목적이 정확히 맞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시점에 행하시는 예수에 대한 증거는 유서기록 19:30~34절에도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두 제자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든지 제자들에게 ‘왜 나귀 끈을 푸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께서 나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확히 어느 시간에 나귀를 데리고 와야하는지 그 신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언제나 틀림없이 정당한 시기와 완전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갈보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섭리에 따라 미리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러면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분은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성취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동안에, 무리들은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38절). 시편 118:26에서 인용된 이 외침은 그들의 출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던 길에는 동 안 다스린 자들, 즉 나귀는 이 시가라 9:3에 예언되었습니다. “시온의 문이 네게 열리나니 그 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문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을 정확하게 미리 예언하였는지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미가 5:2에는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미 7:14). 만일 이것들도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사야 53:3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업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멸시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찰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성취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심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눅 19:41).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나 예수께서는 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셨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으나,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5일이 지난 후에, 예수를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기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우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한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계기로 그분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의 열망으로 인하여 이 시간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은 회교가 기쁨부스를 받으신 구세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유대인들처럼 주를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기를 할당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여러분을 구세주로써 받아들이는 완전한 기회로 삼길 원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여 부끄러워진대, 이 놀라운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 오면 전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모든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 예루살렘의 아이들은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그것을 끌지 못잡자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의 왕권을 상실되었지만, 예수의 승리는 그를 배반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형벌을 받게 되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게 될 때까지, 온전하게 전교하게 주를 구세주로 붙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작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다로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놀랍고 자비로우신 구세주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십시오. 늘

수련회를 마치고

믿음은 정말로 현실이군요



즐거우 수련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수련회 전에 돌아가면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수련회에서 은혜받도록, 몽골교회와 부흥하도록, 몽골로 단기선교사들이 많이 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리더들은 이번 수련회때의 모든 행사는 부부를 초점으로 하여 진행하여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교회에 오는 데 남편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몽골부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여자들은 집에서 주인이고 남자들은 가족에 대한 관심없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남자들이 가정의 주인임을 알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바야갈라와 초카가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바야갈라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남편이 10년간 술마시고 외롭게 살았었습니다. 술을 끊고 싶었지만 못 끊었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부부가 되고나서 술 때문에 싸우는 문제도 없어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초카는 "저는 집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남편의 생애에는 관심이 내 마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평안이었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위해 충헌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 남편은 주인이구나,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니까 하는 것을 배우고 지금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의논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라고 말하

바야르마 (외선부 교사, 몽골어 통역)

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참석한 지체들은 초카보다 부부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저런 부부가 되고 싶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찬송 중에 287장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가게 하소서'라는 찬송에 맞추어 서로서로 모든 부부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때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고백하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한 자매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남편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잘 믿는 이 부부들처럼 하나님 잘 믿는 부부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몽골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날 배운 성경말씀대로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몽골교회에 해마다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몽골팀에는 술마시고 카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성경공부와 찬양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살았었다면 충헌교회까지 인도해주고 여기서 복음되고 하나님 믿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리더들이 파주로 심방을 갔습니다. 몽골 풍습대로 제일 나이 많은 형제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려서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밤 12시 집에 오는 길에 버스가 쪼개져 정류장에서 손을 잡고 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고한 리더들이 편안히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차 두 대가 와서 그냥 태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온 차는 아주 작은 차였습니다. 여섯 명타는 차네 열 명이 다 못 타서 좀 망설이고 있는데 뒤따라 오던 차가 덩달아 서더니 앞차에 못타는 사람은 이 차 타고라고 했고 우리는 그 차를 나누어 타고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함께 심방간 독산동 나라 자매는 특히 놀랐습니다. 정말 타고나기 하나님이나 차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집에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신앙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오전 우리는 성경공부 시간에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배웠습니다. 정말 배운 것에 대한 응답과 재물이 그 날 밤에 이루어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수련회가 기대됩니다. 예수님은 진작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③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수단 - 일반제시

우리는 지난주,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불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 죄를 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억제하시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며 덕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만은 악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으나, 그 이성으로 인해 타락을 막아 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가운데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이 모든 인간의 양심 위에 आरो제된 일반제시이다. 일반제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를 섬기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에라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물론 이것은 자원을 통해서도 나타나다(롬1:20), 사도 바울은 로마서 2:14-15절에서 비록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 위에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을 새겨 놓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것이 바로 일반제시인 것이다. 즉 이 양심위에 새겨진 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어떤 행위가 선하며, 어떤 행위가 악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일반제시를 통한 외적인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내적 순종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형벌, 즉 법률, 행동강령, 그리고 강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신다. 여러 신학자들은 '사회적 연관관계'를 통해서도 인간 사회에서 죄가 억제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은, 인간은 결코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동료 인간들과의 연관 속에서 살아가기에 그의 죄 역시 이 연관됨을 의식하여 억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그 자녀나 부모에게 고통이나 불명예를 가져오게 될 때 그 행동은 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2002 단기선교 국가소개 ④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 아시아 중부에 있는 나라. 면적은 44만 7400km² 인가 2444만 9000명(1999). 인구밀도 54.6명/km²(1999). 정식명칭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이다. 수도는 타슈켄트이고 우즈베크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국호를 구소련을 구소련 공화국으로, 현재 독립국 가맹국(CIS)의 일원이다. 동쪽은 지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은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은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북서쪽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한다. 북서 일부는 아랄해에 면한다. 지리·경제적으로는 타슈켄트, 페르나폴리, 사마르칸트, 중부 서부 및 남동부 등 6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지르기스스탄 내내 7개의 다른 2개 지역이 있다. 행정구역은 1개 자치공화국과 12개의 주로 나뉘어 있다. 대외로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큰 교역 부문은 농업 생산물의 장래를 지니고 있으나, 물의 부족이 생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의 유산. 부패·경제비판적인 유엔조사에 따라 불어 마르코프의 통계 국가가 독립 우즈베키스탄의 반환을 방해하고 있다. 실업률 27%. 통화: سوم(Som) 한울: 625Som=1 달러(1992.10) 1달러 국민환율: 1.020달러(1997).

정부는 1999년 1월을 기점으로 종교와 신앙 없는 비종교국가라고 선포하였지만, 회교의 장교가 꾸준히 증가하여 68.2%를 차지하고 있다. 타슈켄트에는 중앙아시아 회교의 본거지이다. 다른 다른 회교 본거지는 이즈미르·비탈리 등 회교도 무덤터(자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회교는 특히 청년들에게 종교적이지 못하다는 문화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변질할 수 있다. 사위드와 회교의 회교도 선교사들은 회교 사원 내 세속기 부패, 관료의 비효율적 부패, 회교도 사원가치에 위해 설립한 장학금. 소수의 기독교인들 간의 이슬람교도 그 중 다수가 대다수이다. 1985년에서 1991년까지 80만 명의 24~41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을 떠났다. 우즈베키스탄에는 35개의 한국인 교회가 있는데, 회교인이 24~41만 명으로 가장 많다. 복음주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현재로써, 소년학교, 특히 한국교회인 있는데, 이들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점점 더 오래 계속 방해받고 있다.

기도 제목

- 1) 우즈베키스탄, 복음은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슈켄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회교적 세력은 인구 75%의 사람들은 복음은 거의 듣지 못했다. 특히 회교가 부흥하기 시작한 페르나폴리 지역에서는 사역자를 위해.
- 2) 우즈베키스탄에 사역하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위해.
- 3) 우즈베키스탄에서 주를 섬기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복음사역이 잘될 수 있도록.

1박 선교수련회

일시: 1차 - 3.19.(화)~20.(수)

2차 - 3.26.(화)~27.(수)

시간: 오전 10시~ 다음날 새벽 6시

장소: 제2교육관 2·4층

대상: CMIC 1차토요·주일반, 1차집중반

*1박수련회를 참가하여 훈련 수료가 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1차·2차 훈련 중 한반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말씀묵상 - 마 22:15-22

오 경 진 (청년1부 교사)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하려한다. 만일 세금을 바치자하면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함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로 지탄을 받게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가이사에 대한 반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악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대답하셔서 주위를 놀라게 하신다. 바리새인뿐 아니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려 모호한 질문들을 하였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참으로 통쾌하게 답하셨다.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서서 본질적인 대답을 하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로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때때로 나 자신도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본다. 나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그분께 따지며 해답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질문을 갖게 된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비단 사두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무지로 어리석은 질문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입장에서, 나의 시각에서 주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강 미 연 (청년1부, 78주)

예전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능력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외모나 성격도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시험하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나 자신과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행복과 미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무능을 깨우쳐 주시고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실례와 좌절을 맞으면서 깨닫고
주님의 제자로써 훈련받나 봅니다.
점점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또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걸.



다시 만난 하나님

신 미 란 (청년1부, 75주)



믿음에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 때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 되는 줄로만 알았다. 그 때는 그저 의무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얼굴 많이 비추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서의 성공에 두었던 것이다. 당연히 내 삶은 무기력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청년1부의 신임부 리더로 섬기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만 했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자 삶이 달라졌다. 취업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힘들어 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하니 기쁨으로 살 수 있었다. 무기력했던 삶은 활력을 찾았고 낙담은 소망이 되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격이 되시며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가나안 정복

장 해 구 (전도사, 청년1부 부지도)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던 종 모세가 죽고,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러 갔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이 충만했던(민 14:5-9)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수 1:5)”라고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를 다집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리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으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 없이 할례의식을 행합니다(수 5:1-9).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외적 표시이며, 언약의 표입니다(창 17:9-14).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이 평야 생활을 하는 중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삼상 17:47)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육적인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골 2:11)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지루한 지난날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나라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 주는 권력으로 무너져고 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과 그것이 하는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포기(나의 원대로 마음시키고)와 하나님의 권세의 헌신(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며)과 날마다 지성 소로의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간성경공부

에베소서

(방준영 목사, 수요일 12:40~14:00, 교육관 505호)

당신의 신앙과 삶은 건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자람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해 도전하며, 오늘 나의 위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영적 지표들을 제공해 줍니다. 에베소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두란노서 원에서 2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과 양육을 받았기에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의 면면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향해 바울은 영적 삶을 향한 격려와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 사람과 새로운 공동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령충만한 가정과 직장생활, 영적 무장을 통하여 낙담하게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진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움을 입기 원합니다.

크로스웨이 1권

(노경목 목사, 수요일 12:40~14:00, 교육관 109호)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시각적 표현으로 알기 쉽게 해설한 성경연구입니다. 창조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성경 내용과 교리적인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크로스웨이 1권은 초신자부터 중급적인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성경의 주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해와 기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속있고 풍부한 단번질을 공급해 줍니다. 누구나 그 맛을 보고 주님은 참 좋은 분이심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교회사] - 초기 선교 정책(1)

선교지역 답사와 순회전도

앞에서 우리는 초기 선교사들이 펼쳤던 다양한 선교활동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초기 선교사들의 주요한 선교정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 보자.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가장 일반적인 선교방법은 순회(巡廻)전도였다. 이것은 순행(巡行)전도라고도 불리는데, 선교지역을 답사하고 개인전도를 통해 신자들의 모임을 형성해 가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선교사들의 입국이 금지되었을 때는 주로 한국인을 통해 매서(賣書)전도(이것을 권사(勸募)전도라고도 한다)를 실시했고, 개인접촉을 통해 신자를 확보해 갔다. 그러나 선교사가 입국한 다음에는 지역답사를 겸한 순회전도를 실시하였다. 순회전도란 이름 그대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이다. 선교사들은 한국어 선생이든, 통역관, 안내자 등과 함께 필요한 행장과 의약품, 기독교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약품과 책자를 배부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이들을 중심으로 집회를 가지고 교회 설립되도록 후원하였다. 순회전도는 비교적 공개적인 전도가 용이해진 1887년 언더우드로부터 시작되었다. 언더우드는 서울에서 개성, 황해도 장연군, 평양, 의주 등을 순회한 일이 있다.

후에 순회전도는 장로교, 감리교 등 여러 교파에 의해 가장 일반적인 선교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초대 선교사들의 순회전도에는 선교지역 답사와 개인전도라는 본래적 목적 외에도 특정지역의 선교 과잉집중을 막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뜻이 있었다. 초창기 전도와 교회설립의 73%는 순회전도의 결과라고 한다. 특히 이 당시에는 지도자나 구역역의 수가 절대 부족했고 또 신자들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순행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양요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딤후 6:11)

4교구 김찬술(남 8세) 뇌성마비와 소아마비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손을 조금씩 움직이고 소리로 내어 반응을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굳은 몸이 깨어나고, 아이와 아이를 돌보는 가족들 모두 믿음으로 지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길남 은회권사(여 86세) 당뇨로 실명하여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교구 김경의 집사(여 55세) 담낭암이 발견되었는데 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 과정 중 지치지 않을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한세창 성도(남 77세) 오른쪽 어깨 근육 파열로 수술하였습니다. 몸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여니(여 70세) 전장속 성도의 시, 2년 전부터 치매에 걸려 가족과 함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역탐방

작은 자, 하나님의 도구

5교구 일원 1,2구역

구역장 홍명희 집사, 김진숙 집사



일원구역은 말씀에 대한 탐구심이 각별했다. 보통은 구역장이 의견을 유도해 내야 말을 하는데 일원구역은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자유로운 나눔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원구역에 결속시키고 오후가 다 지나도록 교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듯하다.

본문에서는 두 인물에게서 크리스천의 자세를 배웠다. 먼저, 작은 계집아이가 나아만에게 담담하게 증거한 것을 보고 세상에서 높은 자 앞에서는 복음을 온전히 제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했고, 엘리사가 재물과 의복들을 거절하고 단지 '말씀 앞에 나아오라' 라고 말한 것에서 삶에 대한 크리스천의 자세를 발견했다.

구역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본문에 비취 말하는 것도 두 종류로 나누어졌다. 대부분의 구역원들은 아직까지는 연약하다고 생각되어 하나님께 쓰이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계집아이가처럼 연약한 자를 쓰시는 것을 알았으니 주님께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고, 한 구역원은 어떤 일을 해 봤을 때 우쭐함 같은 것이 있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으며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되어온 일들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될 일들이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전체 주세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정공을 찌르는 의견이 있었다. 모두 약하고 작으면 무조건 쓰임 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만 장군에게 담담히 말한 작은 계집아이가도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고 바다메도도 순종했기 때문에 병을 고쳤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이 교제에 나와있지 않은 의견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동안 꾸준히 나눔 형식의 구역예배가 자리잡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구역예배 후에는 각 가족의 문제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성경통신 공부할 함께 했다. 구역예배 후에 성경통신 공부를 함께 하는 구역은 일원구역이 처음이었는데 이것도 좋은 교제의 방법이 될 것 같다.

다음주일 찬송

130장 왕되신 우리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라주일의 행렬 찬송으로 널리 사용되는 찬송이다. 이 찬송가는 821년 오린스의 주교였던 성 데오돌프(St. Theodulf)가 잉제 감독에 갇혀 있을 때 작사하였다. 천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 해 종라주일이 신앙이 독실했던 루이 1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종라주일을 즐기며 성직자들과 신도들의 행렬 속에 끼여 함께 행진하고 있었는데, 대마침 감독에 갇혀 있던 데오돌프가 이 찬송을 불렀다. 그 곳을 지나가던 왕이 그것을 듣고 큰 감명을 받자 그를 석방시켰고, 다시 주교직위로 복귀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년 종라주일에 행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를 것을 명했다. 이 찬송가의 곡은 1615년에 멜기오르 테슈너 목사에게 의뢰하여 작곡되었다.

나귀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오시어 승리의 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 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자!

1절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옛날에 많은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르 주께 다 영광 돌리세

2절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온 천하 백성들이 다 화답하도다

지 우리 백성들이 종라까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3절 주 그날밤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리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찬양원화)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 영 주' 자매를 소개합니다(사전오복)

잠실에 살고 있으며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을 뿐 그 후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 5월이던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님 퇴실 분개서 충현 교회에 다니시고 저를 전도하셔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전에 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에 나오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에 처음 나온 날은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첫날부터 요한복음 3:16 말씀을 외웠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믿음생활 하겠습니다.

한 속 제(새가족부 통신원)



겨울 수련회를 보내며

임예지(중등부)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부흥회는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기도 시간에 장난 치고 떠돌기만 하던 나는 이 부흥회에서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창회의 눈물도 흘렸다.

엄마의 반대로 함께 가지 못한 것 같았던 내 친구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무척 감사했다. 이 저녁 부흥회로 인해 내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올 것 같다. 내 친구도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안 믿는 친구들을 견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수련회가 끝나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홍혜민(중등부)

이번 중등부 겨울수련회는 정말 뜻 깊었다.

처음 수련회로 떠나는 날에는 그냥 애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오라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밤이 되니 이제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이 생각밖의 큰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고 우정을 쌓은 면도 없지만 알지못한 무언가도 가슴에 가득 남은 것은 '파워부흥회 2'였다.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렸고, 꽤 긴 시간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결심도 생겼다.

집사의 생

학개(Haggai)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1)

'축제'(festival)라는 의미를 가진 '학개'는 '스카라', '말라기'와 함께 포로귀환시기에 활동하며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재건축을 격려했던 선지자였습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의 6월 1일(1:1), 6월 24일(1:15), 7월 21일(2:1), 9월 24일(2:10), 9월 24일(2:20) 등이 그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날입니다.

이처럼 '학개'를 읽을 때에는 네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읽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고(1:1-15), 두 번째 설교는 여호와와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의 임재, 그리고 '만국의 보배'(the desired of all nations)를 주실 것에 대한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2:1-9).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추락을 심판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혜를 베풀겠다는 '축복'을 담고 있으며(2:10-19),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열방의 세력을 돌아한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2:20-23).

또한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학개' 선지자는 그 이유를 주변 사람들의 방해보다는 백성들의 게으름에 두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방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는데(스:1:2-4, 63-5),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의 위협을 느껴 성전 건축을 방해함에 따라 성전 재건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스:4:1-5, 24). 그렇지만 '다리오' 왕의 전적인 지원을 힘입어 그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볼 때(스:5:3-6, 6:6-12, 15-18), 결국 '학개' 선지자의 관점에서 성전 재건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것을 그들의 영적인 정결 의식에 있어서 부정하고 부패한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Consider your ways)'(1:5, 7).

(다루음에 계속)

김동현 목사(솔란국 지도)

어른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김성겸 (권도사, 중등2부 부지도)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 꿈을 가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꿈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즉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를 포함한 많은 어른들도 어렸을 때와는 젊었을 때, 이처럼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주어졌는지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자랐을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도 그것을 찾아가고 여념이 없다.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많은 재능들을 발견하면서 어느 것을 개발할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너무 재능이 없음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 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기도 한다.

과연 자신의 재능을 잘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어른이 되는 것에 중요한 요소인가? 재능이 없다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라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가? 대학에 가서도 혹은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춘기 시절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는데 실패해서 그런 것인가?

그러나 정작 더욱 중요한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정체성의 확립은 곧 그 정체성에 걸맞은 인생을 살고 그 정체성답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는 재능이나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재능이나 적성 등 여러 요소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1장), 동시에 불순종으로 타락했다고 고백하고 있다(3장). 우리의 타락한 현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위 한 사람의 성향, 성격 등의 객관적인 요소들을 관찰하는 결국 그의 타락한 현실을 고백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빛 아래 환히 드러난 우리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알려준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전혀 자각이 없는 데 완전히 은혜로 된 자녀이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과 자신이 어떻게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말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뚜렷해진다.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 또 앞으로 인도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가는 것, 즉 십자가를 지고 가신 완전한 순종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따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평생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C a t e c h i s m

26.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및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1)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육신은 티끌이 되어 썩어 버리나 영혼은 멸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외인의 영혼은 죽은 즉시 완전히 기록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들의 육신이 영원히 구속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영혼은 죽은 즉시 지옥에 이르러서 고통과 애를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 그 영혼이 갈 곳으로 떠서 그곳에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살아 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도 전과 같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 질적으로 전과 다른 것이지만,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 되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써 능욕을 당하기 위해 부활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해 부활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이 됩니다.

(2) 최후의 심판과 지림

하나님은 의로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한 날을 정하시고 모든 권능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 날에는 타락한 자들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육신으로 신을 행했던지 악을 행했던지 간에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때의 모든 자들은 악한 자들을 영원히 징치하시는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 때 의로운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 주님 앞에 임하는 충만한 기쁨과 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한 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아 주님 앞에서 처벌을 받고, 그의 권능으로부터 모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역경에 찬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기 위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한 날 모든 사람에게 감히 의심이 없이 우리 각자의 평안에 안주(安住)하기 있도록 하시고, 항상 깨어서 인제든지 "주 예수여 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김병재 전도사 - 청년1부 부지도)

교회소식

모

- [illegible]

남녀 전도회

- | | |
|---|---|
| 1. 바울 17절 갈라디
일시 : 29일 오후 14:30
전소 : 동문밖길 앞 | 21. 예사되리 갈라디
일시 : 오후 15:00
전소 : 예사리길 |
| 2. 바울 43절 갈라디
일시 : 오후 15:00
전소 : 고국로 21호 (우하남루) | 22. 예사되리 갈라디
일시 : 오후 15:00
전소 : 고국로 41호 |
| 3. 바울 63절 갈라디
일시 : 오후 15:00
전소 : 고국로 41호 | 23. 예사되리 갈라디
일시 : 오후 3:30 고국로 부
전소 : 고국로 407호 |
| 4. 바울 73절 갈라디
일시 : 오후 3:30 고국로 부
전소 : 고국로 407호 | 24. 예사되리 갈라디
일시 : 오후 3:30 고국로 부
전소 : 고국로 407호 |
| 5. 바울 83절 갈라디
일시 : 오후 3:30 고국로 부
전소 : 예사리길 | 25. 예사되리 갈라디
일시 : 오후 3:30 고국로 부
전소 : 고국로 41호 |
| 6. 바울 103절 갈라디
일시 : 오후 3:30 고국로 부
전소 : 고국로 212호 | 26. 예사되리 갈라디
일시 : 오후 15:00
전소 : 우하남길 |

다음주 새벽기도회 기도문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주일)
전태두	이수동	김영주	남윤철	조준민	김연식	이윤주

이·미용 봉사자 모집

제2기 봉사자를 교육하고자 합니다.
 자격: 본 교회 성도 40세~55세, 사명감이 있으신 분
 문의: 031-704-0402 / 016-268-8259 (충무)

교회주변 전도 실시

3월 전교구 교회 주변 전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남전도회: 23일(토) 오후
여전도회: 20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
전도장수: 기배정된 역세권

부실목 찾아가세요

교회 내에서 분실한 물건이 있는 분은
교회 사무국으로 오셔서 찾아가세요.

감사위원회 상반기 정기감사 실시

금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감사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대상 - 각 기관별 2001년도 결산 / 각 기관별 2002년도 1월분 시산
2. 감사실시기간 : 2002년 2월~3월말
3. 감사실시장소 :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
4. 제출서류 : 시산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등 중빙철, 시제현금 또는 예금통장

새 · 가 · 조 · 을 · 화 · 영 · 한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193	이무비	3	청년2부		201	권혁진	19	중등2부	
194	노순단	3	청년2부		202	김정현	19	대학부	김동희(하)
195	노희범	6	청년2부	이석재(하)	203	최영만	19	대학부	황은영(하)
196	이희숙	6	청년2부	이석재(하)	204	노수현	19	청년부	김범수(하)
197	김범수	19	청년2부		205	정종수	19	청년부	최희재(하)
198	고한기	15	소장부		206	이승룡	19	청년2부	
199	신영재	15	대학부	전운수(15)	207	김형수	19	청년2부	김경애(하)
200	권윤재	19	대학부						

* 충청교회에 한 기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보다 더 많은 새기증 드로싱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제 26조의 12(의정서)
 - 필시 : 오늘 15: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27조의 2(의정서)
 - 필시 : 오늘 15: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28조의 14(의정서)
 - 필시 : 오늘 14: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29조의 15(의정서)
 - 필시 : 오늘 14: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30조의 15(의정서)
 - 필시 : 오늘 15: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31부의 2(의정서)
 - 필시 : 오늘 11: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32부의 1(의정서)
 - 필시 : 오늘 11: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33부의 1(의정서)
 - 필시 : 오늘 11: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34부의 7(의정서)
 - 필시 : 오늘 11: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35부의 1(의정서)
 - 필시 : 오늘 15: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36부의 1(의정서)
 - 필시 : 오늘 15: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37부의 1(의정서)
 - 필시 : 오늘 11: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38부의 1(의정서)
 - 필시 : 오늘 15: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39부의 1(의정서)
 - 필시 : 오늘 11: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 제 40부의 1(의정서)
 - 필시 : 오늘 11:00
 - 장소 : 국회 의사당 지하 1층

별

1. **회계상** (회계상) 장정인, 회계상 조영숙
의 부원 12명(구 12명) 11월 2일
월 27일 현재, 미국에서 현재 장정인
2. **이념심** (이념심) 장정인, 이념심 조영숙
의 부원 15명(구 15명) 11월 2일
월 27일 현재, 미국에서 현재 장정인
3. **최정인** (최정인) 장정인, 최정인 조영숙
의 부원 22명(구 22명) 11월 2일
월 27일 현재, 미국에서 현재 장정인
4. **지정인** (지정인) 장정인, 지정인 조영숙
의 부원 22명(구 22명) 11월 2일
월 27일 현재, 미국에서 현재 장정인
5. **김근우** (김근우) 장정인, 김근우 조영숙
의 부원 16명(구 16명) 11월 2일
월 27일 현재, 미국에서 현재 장정인
6. **김정인** (김정인) 장정인, 김정인 조영숙
의 부원 16명(구 16명) 11월 2일
월 27일 현재, 미국에서 현재 장정인
7. **전준호** (전준호) 장정인, 전준호 조영숙
의 부원 16명(구 16명) 11월 2일
월 27일 현재, 미국에서 현재 장정인

결론

1. 이종혁 군(이거룡 생도, 이형자
도의 아들, 3교구)과 한기영
(한동희 씨, 윤순덕 씨의 딸) /
11월 15:00, 상제리제 회당.
(☎:38-8803)
2. 양익수 군(양기산 씨, 노덕순 씨
아들, 19교구)과 허일순 양(유
복 씨의 딸) / 23일(토) 13:00,
남구면회관 2층 강당 (☎:56-
4950-2)

남녀 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에서 근무할 남녀직원을 모집합니다.

1. **1. 자격**
1) 세례를 받은 자 2) 만 30세 미만인 자
2. **2. 부문**
1) 서무·교육·음악(무경력자도 됨)
경리(서무)·홍보 부문
3. **3. 재출 시류**
1) 자필 이력서(사진 첨부)
2) 주민등록등본
3) 자기 소개서
4) 당회칙 추천서(타 교인인 경우)
4. **4. 서류 제출 일시 :** 2002. 4. 14.
5. **5.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 충헌교회 사무국
(전화) 552-8200, 6교향 401)

대한예수교 총회

교회 오시는...



예비 아나

주요행사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우리동네사랑예배)	본당
	V 오후 3:00 (어린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1오전 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설 · 기 · 는 · 부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

- | | | | | |
|---------------|-------------|--------------|--------------|--------------|
| 김희철
신촌초교 | 김은호
송원초교 | 노영현
유학초교 | 오진국
17교구 | 이병학
17교구 |
| 윤민진
신촌초교 | 최태원
신촌초교 | 임법성
구파동초교 | 강모을
구파동초교 | 오정현
구파동초교 |
| 이 훈
천연초교 | 남선우
신촌초교 | 정은숙
신촌초교 | 김영길
신촌초교 | 문홍주
신촌초교 |
| 조인재
차곡초교 | 김종구
신촌초교 | 최무길
신촌초교 | 김천재
신촌초교 | 이창호
신촌초교 |
| 차신욱
합천초교 | 박익성
신촌초교 | 김장남
신촌초교 | 이종석
신촌초교 | 윤상철
신촌초교 |
| 이하영
전도초교 | 이병욱
신촌초교 | 안종욱
신촌초교 | 김은희
신촌초교 | 임두만
신촌초교 |
| 이종섭
제1교구초교 | 최기홍
신촌초교 | 이검재
신촌초교 | 전도훈
신촌초교 | 전홍렬
신촌초교 |
| 이정우
서초초교 | 김단호
신촌초교 | 황영일
신촌초교 | 한승규
신촌초교 | 김영수
신촌초교 |
| 정홍식
천원초교 | 김완기
신촌초교 | 원종훈
신촌초교 | 이혁수
신촌초교 | 안동원
신촌초교 |
| 최광만
신촌초교 | 김구형
신촌초교 | 최희웅
신촌초교 | 이계인
신촌초교 | 박덕양
신촌초교 |
| 이대식
신촌초교 | 장태두
신촌초교 | 박홍규
신촌초교 | 권병욱
신촌초교 | 조준환
신촌초교 |
| 배춘식
신촌초교 | 김영달
신촌초교 | 이성호
신촌초교 | 박찬섭
신촌초교 | 최지윤
신촌초교 |
| 노영남
신촌초교 | 박철구
신촌초교 | 정정희
신촌초교 | 신상수
신촌초교 | 강철형
신촌초교 |
| 조계술
천연초교 | 김영은
신촌초교 | | | |

■ 부목서

- | | | | | |
|----------|------|---------|-----|------|
| 이종대 | 정현인 | 김동하 | 차병준 | 김병태 |
| 15승부 | 12승부 | 7승부 | 신승부 | 15승부 |
| 서경진 | 정해성 | 이준경 | 박인기 | 여석기 |
| 1승부 | 1승부 | 1승부 | 1승부 | 1승부 |
| 류병희 | 노경록 | 이홍철 | 김영훈 | 여국근 |
| 1승부 | 1승부 | 1승부 | 1승부 | 1승부 |
| 김교섭 | 송길환 | 이수근 | 이유진 | 안장익 |
| 1승부 | 1승부 | 1승부 | 1승부 | 1승부 |
| 방영준 | 나영환 | 정진호 | 김민우 | 이석욱 |
| 1승부 | 1승부 | 1승부 | 1승부 | 2승부 |
| 고창환 | | | | |
| 1승부 | | | | |
| 친양김득 강필구 | | | | |
| 여진도 | | | | |
| 정원희 | 김경자 | 송하창 | 신동호 | 윤인국 |
| 1승부 | 1승부 | 1승부 | 1승부 | 1승부 |
| 김승문 | 한영준 | 김연익 | 홍순애 | 이우주 |
| 1승부 | 1승부 | 2승부 | 5승부 | 4승부 |
| 김달자 | 안태순 | 최희선 | 김경연 | 조옥자 |
| 1승부 | 1승부 | 1승부 | 2승부 | 2승부 |
| 강덕필 | 김정신 | 강재구 | 최문실 | |
| 1승부 | 대취부 | 청년대 | 1승부 | |
| 고정전도사 | 박양덕 | | | |
| 신교전도사 | 김은희 | | | |
| 대기전도사 | 장기업 | (신로) 황기 | | |
| 대기전도사 | 대기업 | (신로) 황기 | | |

충현중보의 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이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전파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원로목사 및 모든 교역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
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
을 소신있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㉕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

⑥ 단기선교를 통하여 증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